

포기한 사명의 망대를 회복시킨 70인 제자 학개

-복음으로 여는 학개서-

학개 1:1-7, 고린도전서 3:16

정운돈 목사님

* **학1:1-7**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 **고전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자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전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교회,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기도제목과 가지고 나왔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내가 도전하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도전해야 할 원대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류목사님께서 ‘문제가 있는가? 가만히 놔두면 99%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방임하자는 말은 분명히 아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오면 문제를 잡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응답과 해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길이 열릴 때까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3.9.3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3은 성삼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옵소서. 이것이 성삼위를 누리는 기도이다. 9 가지 보좌의 축복은 3 초월, 3 생명, 3 전무후무이다. 3 초월은 보좌, 시공간의 초월, 237의 빛이다. 3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3 전무후무는 나, 교회, 업에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3 시대는 목회자시대, 목회자들은 70 현

장을 찾고 올인해야 한다. 중직자는 70 군데에 현장을 만들고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 렘넌트와 부교역자시대는 70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계속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두어야 한다. 지식도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려는 갈급함도 없고 교만하다.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배우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했던 것만을 고집한다. 그렇게 되면 일꾼 밖에 되지 못한다.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하는 이것이 개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3.9.3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오늘 나눌 학개서의 학개가 그런 것이다. 문제 앞에서 자기 혼자 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그 시대의 쓰임을 받았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복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유, 핑계, 여기에다 정당화까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웠을 때 가졌던 믿음과 신앙과 낮은 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어려웠을 때의 첫 마음, 첫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항상 되새겨봐야 한다. 한 마디로, 잘 될수록 교회중심, 예배중심, 전도중심, 목사님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과 그 후대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드릴 학개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기준, 수준, 표준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은 학개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이다.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사야, 예레미야 등)과 포로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니엘, 에스겔)들과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중단된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가지 섭리와 인도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가나안 땅 현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자 그것을 핑계로 약 16년 동안(주전 536-520년) 성전재건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전재건이 바로 237 선교이다.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은 참된 성공자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불러 성전재건을 하도록 깨우치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 학개가 나이가 핑창히 많았다고 한다. 학개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라고 말한다. 학개가 활동했을 당시 80세가 가까웠다고 한다. ‘누가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하는데, 이 성전을 본 사람이 학개이고,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그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학개 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학개와 같은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이 미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성전재건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재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재건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성전 재건의 참된 의미는 포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70 현장에 무너진 전도의 망대를 재건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인데, 다락방을 안 한다. 그것부터 해야 한다. 복음소식 삼승부터 해야 한다.

1. 첫 번째에서는 예루살렘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꾸지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사건을 예루살렘 제2 성전재건이라고 한다. 제1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다.

(1)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개를 통하여 명령하셨다. 학개 1 장 1 절이다.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들을 감동시켜서 포로생활에서 회복시켜주신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어려움이 닥치자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였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의 천명, 소명,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다.

(2) 그리고 백성들 또한 핑계를 대면서 성전재건을 미루고 있었다. 학개 1장 2절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전도, 선교, 다락방, 지교회를 미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먹고 사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있을 때가 많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되겠다.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야 한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진정일 때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학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관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선교, 교회회복을 원하는가. ‘관벽한 집’이란, ‘널판으로 지은 집’이라는 뜻으로 당시 흠으로 지은 집에 널판을 대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듯이 화려한 집, 혹은 집을 완전하게 꾸몄다는 것을 말한다.

(3)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잃은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학개 1장 6절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으리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가장 기본적인 서밋타임부터 두려라. 행동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2. 두 번째로는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과 언약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전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한 백성들에게 W.I.O 즉,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 또한 이 보좌의 배경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다. 학개 2장 4절이다. “그러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단계와 세상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라. 네가 중요하다.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나는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것이다. 아무 것도 아닌 나에게 매일 지 말아라.

(2)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학개 2장 5절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이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기도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의 환경이 두렵고 어려우냐. 하나님이 0.1초만에 역사해서 다 살아난다. 죽음, 질병, 경제적인 문제, 가정문제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

라가 보장되어있다.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

(3) 세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회복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시공간초월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학개서 2장 6절을 보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후대들이 서밋이 되려면 지금부터 이 그림과 사실적으로 꿈을 그려야 한다. 우리는 237 나라 살릴 큰 그림을 미리 그려야 할 것이다.

(4) 그리고 237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로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왜냐하면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학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딸, 이방인의 딸, 렘넌트의 딸의 3가지 딸과 62가지 전도운동을 재건해야 하겠다.

결론으로 학개서와 미래전도 6가지 단어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미래전도 6단어란, LVTNPO 즉, 영적 레버리지 (Leverage), 벡셀(Vessel), 트랜스미션(Transmission), 노바디(Nobody), 플랫폼(Platform), 아웃소싱(Outsourcing)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안에서 미리보기, 미리갓기, 미리누림, 미리성취, 미리정복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

1. Leverage(레버릿지) 영적리렛대는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보좌의 능력이다. 학개 선지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방법은 우선 성전 즉,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 Vessel(벡셀) 영적인 그릇이다. 학개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성전건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었다. 우리는 30현장과 70망대에서 다락방, 탐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재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겠다.

3. Transmission(트랜스미션)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잘 전달한 전도자였다. 우리는 땅 끝까지 7가지 복음의 메인스트림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Nobody, 다음 단어는 노바디이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현상이었지만 이유있는 순종과 복종을 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남겼다.

5. Platform, 다음 단어는 플랫폼이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현장을 찾아내고 만들어야 하겠다. 학개는 성전재건을 중심으로 전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파워,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이다.

6. Outsourcing, 마지막 단어는 전도와 선교의 영적인 아웃소싱이다. 참된 성전재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전달하여야 하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망대가 먼저 세워질 때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학개와 같은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있는 그 가정과 전도현장, 선교현장, 산업현장, 포기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